



# 2018년 지역인재 9급 국어

01 표준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단모음으로 이루어진 단어로만 묶은 것은?

- ① 공책, 에움길
- ② 서예, 뒤옹박
- ③ 팔괘, 외골목
- ④ 자료, 늦가을

[해설]

① 단모음(單母音)은 발음을 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모음을 말하며, 국어 표준 발음으로 총 10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단모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는 ‘공책’과 ‘에움길’이다.

[답] ①

02 다음 대화에서 박 과장이 고려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

박 과장 : 말씀 낮추세요. 부서 박인테 어때요. 부서 내에서 야 다른 직원들이 있고 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말씀 낮추세요. 오히려 제가 불편해서 안 되겠어요.  
이 대리 : 그래도 상사인테. 하긴 직장 생활 한평생 할 것도 아닌데 편하게 지내는 것이 좋지.

- ① 성별에 따른 협력 방식
- ② 계층에 따른 공감 방식
- ③ 세대에 따른 설득 방식
- ④ 상황에 따른 존대 방식

[해설]

④ 대화문에서는 직급이 높은 박 과장이 직급이 낮은 이 대리에게 오히려 말씀을 낮추라고 하였다. 즉, 가정과는 달리 직장에서는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물론이고 직급이 같거나 낮은 사람에게도 ‘-시-’를 넣어 ‘김 대리 거래처에 가셨습니까?’처럼 존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언어예절이지만 제시된 대화문에서는 상황에 따라 존대 방식을 다르게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답] ④

0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사가 거울 하나를 갖고 있었는데, 먼지가 끼어서 흐릿한 것이 마치 구름에 가린 달빛 같았다. 그러나 그 거사는 아침저녁으로 이 거울을 들여다보며 얼굴을 가다듬곤 했다. 한 나그네가 거사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거울이란 얼굴을 비추어 보거나, 군자가 거울을 보고 그 모습을 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거울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서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항상 그 거울에 얼굴을 비춰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맑은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긴 사람은 오히려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습니니다. 못생긴 사람이 맑은 거울을 본다면 반드시 깨뜨릴 것입니다. 그러니 깨뜨려질 바에야 차라리 먼지에 흐려진 채로 두는 편이 나은 것입니다. 먼지로 흐려진 것은 곱은 흐릴지라도 그 맑은 바탕은 없어지지 않으니, 잘생긴 사람을 만난 후에 같고 닮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음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림을 취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대는 어찌 이를 이상하다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경설」 -

- ① 문답 형식을 통해 작가의 직접적 개입이 약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② ‘흐린 거울’과 ‘맑은 거울’의 대비를 통해 사람들의 인생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비유적인 표현의 활용을 통해 작가가 삶에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작가의 분신인 ‘나그네’와 일반적 인식을 대표하는 ‘거사’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해설]

④ 제시된 글에서 거사는 세상에 청렴결백한 사람보다 결점을 가진 사람이 더 많으므로 지나치게 결벽하고 청명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보다 그 결점을 이해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부정적 현실을 수용한다고 해서 사람의 맑은 본성이 흐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현실주의적인 처세관을 주장하였다. 즉, 작가의 분신인 ‘거사’와 작가의 입장과는 다른, 일반적 인식을 대표하는 ‘나그네’를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답] ④

04 다음 글에서 ‘사실(事實)’과 ‘사실(史實)’의 구분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류 생활의 과거에는 수많은 일이 일어났다. 역사란 그 많은 사실(事實)들 중에서 그야말로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실들, 즉 사실(史實)을 뽑아 모은 것이라고 우선 말할 수 있다. 사실들 속에서 사실(史實)을 선택하는 것이 역사를 성립시키는 일차적인 작업인데, 역사의 사료로서 적절한 것을 선별해 내는지가 그 관건이다. 어떤 기준으로 수많은 사실들 속에서 유효한 사실(史實)을 가려내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체로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과 시대적 맥락에 그 기준을 둘 수밖에 없다. 다만 같은 시대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 미래의 사람들에게까지 폭넓은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선택된 사실(史實)이 진실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가 진실성이 더 높은 사실(史實)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시대가 가진 역사적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① 대중의 동의가 진실한지 여부
- ②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여부
- ③ 유일한 가치와 대표성을 확보했는지 여부
- ④ 역사가의 사적인 견해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해설]

②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많은 사실(事實)들 가운데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사실들, 즉 사실(史實)을 뽑아 모은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실(事實, 실제로 일어났던 일)’과 ‘사실(史實, 역사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의 구분 기준은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답] ②

05 다음을 바탕으로 음운 변동의 사례를 설명할 때 적절한 것은?

- 대치 :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탈락 :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
- 첨가 : 없던 음운이 생기는 현상
- 축약 :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 ① ‘펼하고[파타고]’를 발음할 때,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 ② ‘떡잎[땡닙]’을 발음할 때, 첨가 현상과 대치 현상이 일어난다.
- ③ ‘밭고[발꼬]’를 발음할 때, 축약 현상과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 ④ ‘부억도[부억또]’를 발음할 때, 대치 현상과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해설]

② ‘떡잎’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 = 대치)에 의해 [땡닙]으로 바뀌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로 시작하므로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나 [땡닙]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비음화(교체 = 대치) 현상에 의해 [땡닙]으로 발음된다. 비음화 현상은 파열음 ‘ㄱ, ㄷ, ㅂ’이나 유음 ‘ㄹ’이 비음인 ‘ㄴ, ㄹ’의 앞이나 뒤에서 비음인 ‘ㄴ, ㄹ, ㅇ’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답] ②

06 밑줄 친 부분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그는 낚시하러 가겠다고 한사코 우겼다.

- ① 참 특이한 사람 다 보겠군.
- ② 지금 떠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겠지.
- ③ 이번 달까지 꼭 목표량을 달성하겠다.
- ④ 대통령 내외분이 식장으로 입장하시겠습니까.

[해설]

제시된 글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③이다.

[답] ③





[해설]

판소리는 장면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설의 형식적 논리가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해당 부분의 충실한 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장면 극대화의 원리’를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는 판소리는 우리 삶의 모습을 생경하게 전하고자 하는데, 실제의 삶은 논리적으로만 바라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를 심청전에 빗대어 서술하고 있으며 골계미와 풍자미로 삶의 진실성을 예술적으로 승화한다고 하였으므로 제시된 글의 주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답] ③

1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열 마리씩  
스무 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나는 바다로 가서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하나를  
집어 들었다.

- 전봉건, 「피아노」 -

- ① 의인화된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표출하고 있다.
- ② 인간과 다른 대상의 면모를 들추어 자연의 가치를 예찬하고 있다.
- ③ 이미지의 연상을 통해 제재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상반된 계절적 배경의 대치를 통해 현실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해설]

③ 화자는 여인이 연주하는 피아노 소리(청각)를 ‘물고기가 쏟아진다(시각)’라고 표현하였고 이를 바다, 파도, 칼날로 연결지어 피아노 선율에 대해 느끼는 감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답] ③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은?

- ① 다친데 바르는 약을 찾으려 별수를 다 썼다.
- ② 다친 데 바르는 약을 찾으려 별수를 다 썼다.
- ③ 다친데 바르는 약을 찾으려 별 수를 다 썼다.
- ④ 다친 데 바르는 약을 찾으려 별 수를 다 썼다.

[해설]

② • 다친데 : 곳이나 장소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데’가 쓰였으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별수 : 여러 가지 방법을 의미하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써야 한다.

[답] ②

16 다음을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의 반의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으므로 반의어도 여럿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벗다’의 반의어가 ‘옷을 벗었다.’의 경우에 ‘입다’이지만 ‘모자를 벗었다.’의 경우에는 ‘쓰다’이다.

- ① 산 그림자가 깊다. - 열다
- ② 그녀는 생각이 깊다. - 가볍다
- ③ 선생님의 병환이 깊다. - 가깝다
- ④ 우리나라는 역사가 깊다. - 짧다

[해설]

③ 둘 이상의 단어가 상반되는 의미일 때, 이 단어들을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하며 이러한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반의어라고 한다. 반의어도 상황과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선생님의 병환이 깊다.’에서 ‘깊다’는 수준이 높거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뜻하므로 ‘경미하다’를 반의어로 표현할 수 있다.

[답] ③

17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생각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5세기 중반까지 일반적 독서법은 소리 내 읽는 음독(音讀)이 아니라 눈으로만 읽는 묵독(默讀)이었다. 책의 양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책을 정독(精讀)하는 집중형 독서가 보편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인쇄술이 점차 산업화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18세기 중반, 책 생산량이 이전의 3, 4배로 증가하면서 집중형 독서는 다독(多讀)하는 분산형 독서로 바뀌었다. 20세기 후반 인류는 또 한 번의 독서 혁명을 겪게 된다. 인터넷 혁명을 통해 검색형 독서가 극대화된 것이다. 검색형 독서에서 독자(reader)는 사용자(user)가 되었다. 이제 독자는 필요한 텍스트만 고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라도 텍스트를 수정하고 그것에 개입해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리를 의식한 텍스트, 구어를 활용한 문장, 음성을 글자에 담은 이모티콘 등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집중형 독서는 다독보다는 정독에 어울리는 독서 방식이겠군.
- ② 검색형 독서 방식에서는 독자가 생산자의 역할도 할 수 있겠군.
- ③ 분산형 독서 방식에서의 변화가 구어를 활용한 글쓰기를 가능하게 했겠군.
- ④ 책의 양적 증가와 독서 방식의 변화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겠군.

[해설]

15세기 중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독(讀)</li> <li>• 책을 정독(精讀)하는 집중형 독서</li> </ul>
↓ 금속활자의 발명, 인쇄술의 산업화
18세기 중반
다독(多讀)하는 분산형 독서
↓ 인터넷 혁명
20세기 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색형 독서의 극대화</li> <li>• 독자(reader) = 사용자(user)</li> <li>• 소리를 인식한 텍스트, 구어를 활용한 문장, 음성을 글자에 담은 이모티콘 사용</li> </ul>

- ③ 구어를 활용한 글쓰기는 인터넷 혁명으로 극대화된 검색형 독서 시대에 실현할 수 있는 독서 활동이므로 '검색형 독서 방식에서의 변화가 구어를 활용한 글쓰기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 타당한 추론이다.

[답] ③

18 다음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침체된 재래시장이 본래의 역할을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표 방안은 시설 현대화 사업과 상품권 사업이다. 시설 현대화 사업은 시장의 지붕을 만드는 공사가 중심이었으나 단순하고 획일적인 사업으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상품권 사업도 명절 때마다 재래시장 살리기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방안은 무엇일까? 기존의 재래시장은 장년층과 노년층이 주 고객이었다. 재래시장이 발전하려면 젊은이들이 찾는 시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젊은이들의 기호를 파악하기 위한 상인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경쟁자인 대형 유통 업체와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다시 말해 주변 환경만 탓하거나 관련 기관의 지원만 바라지 말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당장 배가 고프다고 해도 물고기를 바라기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질 때 대형 유통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재래시장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 ① 대상을 종류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필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글의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④ 현재 상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해설]

- 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침체된 재래시장의 회복 방안을 구분하여 설명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다.

[답] ①

19 다음 내용에 어울리는 한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옛것을 본받는 사람은 옛 자취에 얽매이는 것이 문제다. 새것을 만드는 사람은 이치에 합당치 않은 것이 걱정이다. 진실로 능히 옛것을 본받으면서 변화할 줄 알고, 새것을 만들면서 법도에 맞을 수만 있다면 지금 글도 옛글만큼 훌륭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 ① 一日三秋
- ② 先憂後樂
- ③ 送舊迎新
- ④ 溫故知新

[해설]

- ① 一日三秋(일일삼추) : 하루가 삼 년 같다는 뜻으로, 몹시 애타우며 기다림을 이르는 말이다.
- ② 先憂後樂(선우후락) : 세상의 근심할 일은 남보다 먼저 근심하고 즐거워할 일은 남보다 나중에 즐거워한다는 뜻으로, 지사(志士)나 어진 사람의 마음씨를 이르는 말이다.
- ③ 送舊迎新(송구영신) :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음을 이르는 말이다.

[답] ④

20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꿈에 단니는 길히 자취곳 날작시면  
    님의 집 창(窓) 밧긔 석로(石路)라도 달흐리라  
    꿈길히 자취 업스니 그를 슬허호노라.

(나) 비 갠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 ① 시적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이별의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③ 인식을 전환하여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④ 상황을 과장하여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절실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해설]

④ (가)는 꿈이라는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자취가 남는다면 임의 집 창 밖에 난 길이 돌길이라도 다 닳았을 것이다”라고 과장되게 표현하며 절실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해마다 임을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을 대동강 물에 보탠다)’ 등의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답] ④

#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시리즈!!

# 1

## 한권으로 다잡기

핵심이론 + 예상문제 + 기출문제가 한 권에!

이런 분들에게 추천

"핵심이론을 파악하고 시험 전 완벽한 마무리를 원하는 수험생"

동영상 강의 [www.sdedu.co.kr](http://www.sdedu.co.kr)



상세정보 보기> <https://c11.kr/815i>

# 2

## 배박 모의고사

난도별 모의고사로 실력 다지기!

이런 분들에게 추천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을 통해 학습내용을 복습하고, 실전 감각을 키우고 싶은 수험생"

동영상 강의 [www.sdedu.co.kr](http://www.sdedu.co.kr)



상세정보 보기> <https://c11.kr/815i>

## 시대에듀X자몽

다양한 학습자료를 만나보세요!



시대에듀 홈페이지 [www.sdedu.co.kr](http://www.sdedu.co.kr)

공시생 자몽 블로그 <https://blog.naver.com/jamongsidae>

공기출 자몽 게시판 <https://0gichul.com/jamong>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